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1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3월 3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정근원 전 지회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모두 승소

해고투쟁 승리가 이어진다

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의 해고자 동지들의 투쟁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 유성영동지회, 콘티넨탈지회, 보쉬전장지회의 해고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자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없다. 그만큼 노조파괴를 시도한 자본들이 무리한 탄압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만큼 어처구니 없고 무리한 징계 해고였다. 그런 와중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쉬전장의 정근원 전 지회장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승소이다.

부당노동행위마저 인정했다!

법적 싸움이 진행되면 부당해고는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우스개소리로 노무사의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부당노동행위를 이겨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 보쉬전장 정근원 전 지회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쉬전장 자본이 해고를 부당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런 부당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보쉬전장은 불법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건설팅과 계약하여 노조파괴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자행했다. 해고자들의 투쟁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겼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정당성을 확인받았고, 앞으로 더 크고 당당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행위 책임지겠다던 책임자들은 어디갔나

노조파괴 사업장들의 경영진들은 하나같이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 했었다. 자신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당한 근거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심지어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인정됐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유성기업, 콘티넨탈, 보쉬전장 대표이사과 관련 책임자들은 당장 해고자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옷벗고 나가는 것만이 본인들의 행동을 책임지는 모습이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투쟁으로 박살내자!

PLA지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새롭게 투쟁 시작한다

PLA지회가 구조조정에 맞서 새롭게 투쟁을 시작한다. 지회는 총회를 통해 4명의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하고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PLA자본은 휴업, 폐업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면서 자발적인 퇴사를 강요했다. 그 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무능하고 의지없는 경영진에게 환멸을 느끼며 회사를 떠나갔다. 결국 자본이 의도한 인력 감축은 이미 달성된 셈이다. 이제 남은 조합원들은 무능한 경영진에게 떠밀려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경영진이 떠나라고 이야기한다.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자본에게 폐업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폐업하겠다고 하면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그동안 십수년간 고생한 조합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떠나라고 말한다.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면 불안에 떨며 회사부터 살리고 봐야한다고 물러서는 형국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폐업 협박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위장폐업이 명백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폐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협박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PLA지회는 다르다. 더 이상 협박에 당하지 않는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제 구조조정에 맞서는 싸움은 새롭게 시작됐다.



대법원, “포레시아 정리해고 부당”

3월27일 대법원이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2009년 경기도지부 포레시아지회 조합원 19명을 정리해고 했다. 2011년 7월 고등 법원은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고용보장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해고 무효 판결했다. 회사가 항고해 재판을 진행했다.

송기웅 포레시아지회장은 “대법원은 회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에서 고용보장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5년 동안 생계활동도 하지 못한 채 투쟁해 온 결과다”라며 “금속노조와 지부,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번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회장은 “회사는 현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하며 기업노조와 차별하고 있다”며 “회사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이후 4년 10개월 동안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투쟁해왔다. 지회는 매일 출근투쟁과 노동부 1인시위를 진행했다.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조합원들과 영등포 역에서 정리해고 철폐 선전전도 벌여왔다.



<포레시아지회 간부들>

왼쪽부터

황수현 총무부장, 이병운 조직부장,

송기웅 지회장, 구선희 사무장

‘간병사 1인당 환자 20명?’ 청주시 노인병원 결국 파업 돌입

의료연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밤 23시 30분까지 이어졌지만 교섭은 간병교대제 시행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이어졌다.

노조는 “병원장은 환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간병사 1인이 20명의 환자를 돌봐야하는 간병교대제를 고집하고 있다. 인력충원 없는 간병 3교대제 근무는 병원이 나서서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간병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며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병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병사 1인이 각각 독립된 방구조를 가진 병실 2~3개를 함께 담당하라는 병원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CCTV인데, CCTV가 환자의 기저귀나 교체나 식사보조, 낙상사고 방지 등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안전보장과 서비스 질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측에서는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측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 조차 무리하고 지적인 간병사 1인 2~3병실 담당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3.23 콘티넨탈지회 산행>



<3.27 대전 3,4공단 전락조직화 선전전>



<3.28 삼성전자서비스 결의대회_울동>



<3.31 청주시 노인병원 파업투쟁 연대>